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답변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교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쓴이: 권집자> ●보낸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타넷: www.hanmaum.org 또는 한양을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믿음 강하면 한 생각이 곧 결정력 돼

올바른 정제방법 알고 싶어요

문 스님의 귀하신 말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올바른 정제의 방법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화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들었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화장이 좋지 않다고 하는 말도 들은 터라 무척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좋은 장소를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산을 깎아서 묘를 쓰고 그렇게 해야 만이 조상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관습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잘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잘 파악해서 행하셔야 될 겁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름도 달라졌고 땅명어리도 좋아졌고, 시대가 시대니만큼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아직도 그렇게 한다면 차에다 싣고 금방 갈 것을 마차에다 싣고 느릿느릿 가는 것과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지금대로 생각이 달라져야죠.

요즘은 곳곳에 화장장을 해서 유골을 모시는 공원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내가 하고 싶으면 그대로.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풍쳐진 거니까 물론 그릇 따놓고 밝게 밝히고 향 사르고 주인공에 다 맡기면서 위패를 다리니에 써서 탑에 올리고, 한 가정에서 탑 하나만 마련하면 대대로 들어가고 되 들어가니 돈도 안 들고 후대로 내려가면서 관리하

살라고 하는 거지 자식을 안 되라고 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서린 마음이 한마음으로, 공심으로 하는 거고 공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共生)이면서 공심(同心) 공체(共體) 공용(共用) 공식(共食)으로서 산다고 했습니다. 공생이라고 하는 건 종자가 같다는 얘기고, 때로는 탑에 모실 때에도 영명이 본래 착한 분, 마음 공부 안했어도 본래에 착한 분들은 그냥 출몰 벗고 떠나세요. 떠나서 그 거기에 근거지가 있으니까 항상 무슨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다면 같이들 모아죠. 이렇게 하는 도리, 이런 도량이라는 뜻입니다.

마음공부를 해서 벌써 먹는 거 입는 거 모두를, 모습이 공했다는 걸 알고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은 그냥 다 벗어버릴 수 있구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아무 곳이나 모시게 되면 영령들이 때에 따라서는 집으로 들고 그러는데 이걸 말로 어떻게 하리까. 조금만 잘못해도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이 살면서 부모 조상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지, 알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탑에 모시는 조상님들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문제죠. 그래서 탑에 모셔 놓고 꽃 한송이를 들고 가서 공부의 도리를 같이 한 자리하자고 하면서 엄원하고 오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어느 거든지 다 종자가 있습니다. 천차만별이지만 종자가 다 있어서 끼리 끼리를 모두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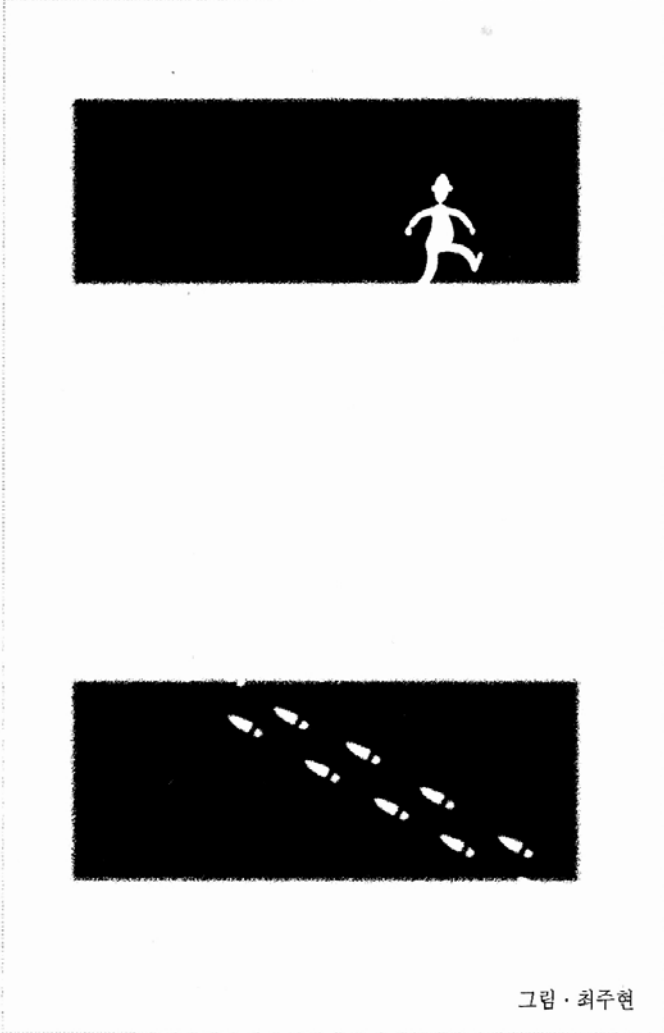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이지만 모두가 제각각 생겼듯이 말입니다. 크면 큰 걸로 전력이 좀더 들어올 뿐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전력이 덜 들어올 뿐이죠.

그런데 주인공은 잠을 해야 잠을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고, 만질래야 만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보지 못하지만 틀림없이 전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는 재고 나는 나고' 이렇게 각각 분단 말입니다. 전력이 다 똑같은데도 저건 저것대로 있고 나는 내대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전력이 어떻게 하나인 줄 알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식이 어떻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가서 안 들어오고 공부를 안하고 그래서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면 '들어오기만 해 봐라. 요놈의 새끼가만 놔두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다섯 식구든 여섯 식구든 살

심지가 올라와서 불이 환히 들어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물질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르신다면 반드시 올바르게 지랄 것입니다.

기독교 '종' 과 불교 '시자' 의 차이

문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만 '불이' 라는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의 실체를 바라보고 나름대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로부터 자주 듣게 되는 소리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일에 임할 뿐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에 대해 문득 궁금해지기를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스님들께 자주 듣게 되는 "나는 주인공의 시자일 뿐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일임한다" 라는 가르침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고 '주인공의 시자' 가 지닌 뜻을 같은 의미로 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의미인지 질문드립니다.

답 물감이 얼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얼 가지를 한데 모아서 물감이라고 하지만, 이걸 비교해서 얘기에요. 얼 가지를 통틀어서 물감이라 하지만 색은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 물감을 쓸 수도 있고 저 물감을 쓸 수도

자식이 잘못할때도 주인공 똑같이 마음의 불이 들어오게 이끌어 줘야

기도 좋고 후손들에게 부담감도 주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자손들한테 산으로 찾아다니라고 하기에 너무도 부모들이 염치없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사람이 사는 도리에 맞추어서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먹은 대로, 시대를 잘 봐서 돌아가는 대로 하세요. 그게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유골을 상사 같은 곳에다가 전부 모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유골을 전부 모신다 하면 이 공부를 영 모르시는 분들이죠. 그건 산소에 갔다 그냥 모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손들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탑에 모시는 것과 마음의 도리를 모르고 그냥 탑에 모시게 하는 것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탑에다가 뿔가투를 넣는 것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섬세하길 봐 세 번씩 요렇게 손으로 꼭꼭 집어서 넣으시라 한 거는 섬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한해서요.

그리고 탑에 들어가는 영령들은 어떡 하든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거 처라고 생각하고 항상 거기 모아서 공부를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나가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모아서 토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모셔 놓는 탑들은, 그런데 공부를 안하고 있다가 그냥 탑으로 모신다 하더라도 사찰에 모신다면 엄불소리 들게 되고 그러는 거죠. 모두가 그렇죠. 그러나 다른 점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영원히 세세생생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산다는 점입니다. 마음공부를 하면서 탑에 모시게 되면 항상 마음 공부하는 분들도 영령과 둘로 하지 않고, 내가 밥을 먹어도 그 부모와 같이 먹는 거라는 얘기고. 뭐든지 같이 하니 힘이 없이는 겁니다.

힘이 없이 하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들은 금강과 같다고 하죠. 금과 같다는 소리입니다.

하고 싶은 일 잘 안될때 놓는법

문 얼마 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입니다. 정말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한 마음 홈페이지에서 '길을 묻는 이에게' 를 읽으며 다시 관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동안 제가 왜 책 뿌리를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인공 공부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빠져리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스님, 그런데 공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요즘은 이렇게 관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난 잘 모르겠으니가 되게 하는 것이 주인공 뜻이러면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이 뜻이러면 안되게 하라' 구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인 하지만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것을 주인공 뜻으로 알고 놓을 수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루기 위해서 주인공에 다시 관하여 노력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더 배워야 할 점도 많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 하는 거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뒤집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보통 그냥 살피는데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고 정말 급하다, 내일 일을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는데, 결정을 지어야 할때면 이게 큰 일났구나. 결정지어야 하는 이 문제가 인생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결정지를 수가 없을 때 생각해 봐서, 세계적으로 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결정을 탁 지어서 놓으면, 무슨 몸에서 뭐 나오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믿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진짜 믿는다면, 그냥 던져놓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하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금방 죽는다고 해도 참 편안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자리를 못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를 정말 믿으세요. 과거 자기를 진짜로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되면 금방 그제, 일론 쉽게 말해서 구정물인데 맑은 물로 화해서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을 때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게끔 무조건 따지지 말고 좋게 살 수 있게 결정을 지세요. 모든 것을 다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결정짓고 살수가 있나 하지만 상대방에서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게 거짓말인줄 알지 말고 안되면 되든 무조건 해보세요. 무조건 해 나가면 몸과 마음에 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법이 있었는가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루 중 일 울다가 땅을 내려다보고 웃게 돼요. 이렇게 근중한 법이, 이런 법이 있었을까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는 하염없이 눈을 흘리다가 냇물 흐르는 걸 보고는 너무 웃음이 나서 웃었대요. 이렇게 인생이 물 흐르는 거 같은 거를 가지고 내가 발버둥쳤구나 하는 생각에서요.

그러니까 생각으로서 언제나, 앞으로 미래도 생각지 않고 또 살아나가는 데도 이 공부가 뭘지도 생각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도예요. 삶이요. 도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딱 자리가 뒤집어진 사람은 그게 바로 도예요. 바로 놓는 거예요. 뒤집어진 자리를 바로 제자리에 세워 놓는 거죠.

이 도리를 말로만 듣고 경험을 못한다면 참 억울하기가 짝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도록 열심히 무조건, 무조건이예요. 내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무조건이예요. 나는 그냥 나다 이러더라도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있다는 거. 동자가 있다는 거, 동자를 키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꾸 해봐야 키워지죠. 그러면 그 동자하고 자기하고 풀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 군데가 다 통해요. 이것을 여러분이 해 봐야 이렇구나 하고 눈물도 저절로 나오고, 웃음도 저절로 나오고 기가 막혀서 결정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마음가짐

문 그동안 여러 스님들께서 마음 내어주시는 덕분에 건강한 여자아이를

양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다보니 절 낳아주시는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질문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임신 중에도 시간이 되는 한 스님의 법문테이프와 한마음요전 그리고 선법가를 늘 가까이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관을 하면서 아가에게 '널 이끌어 나온 것도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을 믿고 절실하게 관하면서 이 우주법계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 되라' 고 늘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물론 태어나서 두 달이 될 지금도 잠자리에 들기 전 관하면서 '아이고 내가 돌이 아니니 돌이 글을 읽는 것도 그 자리가 전담이 되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 하면서 아이한테 '한마음요전' 을 읽어줍니다. 때로는 선법기도 불러주고요. 하지만 좀더 아이한테 구체적으로 주인공자리를 알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를 대할 때 어떠한 마음을 내어야 하는지, 스님의 가르침 바랍니다.

답 여러분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부부기간이나 부모자식기간에 애로점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 애로점을 어떻게 해야 만이 슬기롭게 방지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불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단에 가이만 부처님 법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면 부처님 법이 아니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있으니까 부처님도 계시고, 한 분 한 분 계시니까 부처님 법도 계시고, 한 분 한 분 계시니까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한식구라고 한다면 생명의 근본은 그 한식구가 똑같습니다. 전력이 똑같듯이, 안 그렇습니까? 팔만대장경에 어렵게 한문으로 나와 있는 것을 곱씹어 내려가지고 지금 가정에다가 맞추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부처님 법이니까요.

모든 생명은 똑같은데 모습은, 전력은 똑같이 흘러도 전구는 전부 다르죠? 여기는 요런 것. 저기는 조런 것 방만하다 전부 다르네요. 한방 식구가 다 같은 가족

지옥과 극락도 내 한생각이 만드니 무한한 능력 가진 참 자기 믿으세요

아나가는데 어느 누가 잘못되면 그냥 죽일 놈 소리가 허영 나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못하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러면 좀 따뜻하게 대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아예 폭력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하면 안 되죠.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고 나가면 '아이고, 추워. 집이라고 좀 따뜻하게 하고 들어다 너 해봐.' 그리고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저 전력도 내 전력과 똑같으니까, 저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나 똑같으니까 당신만이 저 애를 이끌어 갈 수 있어.' 하고 맡겨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자 맡겨 놓았다면 굳이 입으로 속상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 배 안 고프나. 나갔다가 들어와서 피곤하지 않나. 어디서 그렇게 지냈나?' 하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따뜻하게 대해 주면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다가도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부모님이 따뜻하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는 까가 뜨이고 눈이 열려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 마음의 불이, 전력이 돌이 아니니까 불이 들어올 수밖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이를 임신하고 낳아서 기르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또 가정의 모든 애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아기가 어려서는 문제가 많지만 요즘 청소년들 문제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애로점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 애로점을 어떻게 해야 만이 슬기롭게 방지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식구로 만났는데 어떻게 조건이 있어 사랑을 합니까? 식구라면 조건 없이 사랑을 해야지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이익을 취해서 자식을 기릅니까? 그렇지 않죠? 자식이 잘돼서 잘 살기만을 바라고 부모는 자식을 기릅니다. 그러나 내내 그런 생각이 변치 않고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짓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잘못됐다 고 내색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마음으로 부드럽게 해나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주인공에 맡겨 주면 아이의 마음 전구에도 내 마음 전구에도 불이 들어오게 되니

있는데 어떤 것을 쓸 때 물감이라고 하겠느냐는 거죠. 이런 거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어머니를 만날 때 자식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하죠? 아내가 남편을 만났을 때는 어때요? 남편을 만나는 마음으로 대하죠. 동생을 만났을 때는 내가 동생을 만나는 마음으로 형으로서 대하고, 친구를 만났을 때는 친구를 만나는 마음으로 대해요. 그게 바로 나눔이예요. 색은 여러 가지이지만 근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근본 하나가 이 색을 쓸 때에 나라고 하겠느냐. 저 색을 쓸 때 나라고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평등공(平等)이라고 그래요. 열 가지를 다 쓰지만 어떤 걸 내세울 수 없는 게 물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내세울 수 없는 게 보살이라는 겁니다. 자기라고 내세울 수가 없는 게 보살님이죠. 나투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바퀴가 굴러가면 심봉은 공적도 안하고 노력만 줄뿐이죠. 심봉이 움직여서는 안돼요. 바퀴가 구를 뿐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지금 나무며 살면서 고고적인 일 해보셨어요? 이 날까지 고고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먹고, 한 가지만 말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인데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먹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것이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한데 뭉쳐서 그냥... 만약에 비교해서 예나 지라든 에너지가 그냥 전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나 나나 하고 따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종교가 틀리니 저 종교가 틀리니 하고 따지거든요.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종지가 있고, 접시가 있고, 대접이 있고, 컵이 있고 차반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때에 따라서 다 쓰여지죠. 때에 따라서 다른 용도에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종지를 미워하지도 말고, 접시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또 사발은 큰 그릇을 위로 보지도 말라 이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못났다 할지라도 살만 사람만 못한 게 아니라 살만 사람보다 못한 내가 더 귀중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비교해서도 한 마디 할까요. 엄마가 아무리 못났어도, 코가 언청이이라도 아마 잘생긴 남의 어머니보다는